

스마트공장 기업 판로 확대 '맞손'

전북자치도-삼성전자,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판로개척 적극 지원·우수기업 격려 스마트비즈니스포 참여해 '전북 STREET' 구성... 도내 17개사 부스 운영·구매상담회 등

'2024 스마트비즈니스포'에 유일한 지자체 특화 공간인 '전북 STREET'를 구성해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주관하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 엄재훈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정철영 (사)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회

장 등과 함께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들을 격려하며 대표의 의지를 북돋웠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도내 17개 기업이 참가해 전북 STREET를 운영했으며, 부스 참여 업체 외에도 15개사의 구매상담회가 진행됐다. 지난주 소재 한 기업은 200여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스마트비즈니스포'는 2016년부터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

는 전국 최초 스마트공장 민간 확산 협의체인 (사)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이 특별관인 '민간주도 전북관'을 운영하며, 6만여 명의 방문객이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제품을 관람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협력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도와 시군은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삼성전자

는 혁신기술과 성공 노하우 전수 및 판로개척에 힘쓰기로 하였다. 지자체가 대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제1호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다.

제1호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올해 2월 삼성전자 출신의 현장혁신 전문가 30명을 채용한 데 이어, 4월에는 호남권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교육공간인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전북형 멘토들이 현장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개별 컨설팅으로 삼성전자 사내 임직원 소그룹 입점 지원, 에버랜드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납품 협의, 수출 지원 등 13건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절삭공구의 제작 기술지도, 효모균의 성분분석, Lay-out 3D CAD 작업 등 삼성전자의 전문인력 풀을 활용한 8건의 기술지원도 이뤄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는 제1호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의 안착으로, 대기업의 상생철학과 지역 주도 스마트공장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이번 박람회 기간 전북 기업들을 대상으로 100여 회 이상의 구매 상담과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판로 확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삼성전자는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1호 사례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도내기업들과 지속적인 동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판로 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니스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삼성전자 ESG 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등 참석자들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기업으로 구성된 '전북 STREET'를 둘러보며 도내기업들을 응원했다.

"尹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알맹이 없다"

민주 이춘석 의원,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서 전북 소외 지적 박상우 국토부장관 "전북,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북 소외' 행태를 끊임없이 지적했다.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전북이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울러 박상우 장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협력회의를 위해 전북 방문을 준비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과 행보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전북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SNS를 통해 "장관의 전북 방문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논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 신공항 건설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총사업비, 활주장 길이, 계류장, 주차장 면적,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 등 모든 측면에서 규모가 확연하게 작다는 사실을 밝혀내, "충분히 공감하며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라는 박상우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평일과 주말 노선별 KTX 운행횟수를 분석해 코레일 열차 운행에도 호남과 영남 간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KTX 좌석 수가 KTX-산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데, 경부축은 KTX를 더 많이 편성하

는 반면 호남축은 비슷하게 편성해 실제 승객이 타고 갈 수 있는 좌석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밝혀냈다.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사업을 책임지는 컨트론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책과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진짜 컨트론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국토부 주요 SOC(도로, 철도, 항공·공항, 산업단지) 신규사업 예산 총 50개 중 유일하게 전북만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으며, 관련해 최근 5년간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단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광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실득 등에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춘석 의원은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돼있는 국가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부가 한발 정진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대표도서관, 2026년 완공 목표로 건립 본격 추진

세계적 건축가 이은영 설계, 전북 대표도서관 랜드마크 기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로 도서관 건립 탄력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전북의 새로운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본격 추진된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착공을 위해 이달 공사와 같이 용역 발주가 진행 중이며, 2026년 말로 완공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2020년 총사업비 492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급격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6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조건사항인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2단계 심사)를 지난해 말부터 이행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은 전북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내 다양한 도서관 간 정보교류 및 조정의 중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표도서관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하게 되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전북학 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일반 자료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계획이다.

실제는 세계적 건축가 이은영씨가 맡았다. 독일 Yi Architects의 이은영 건축가는 한국건축을 기반으로 서양건축과 전통 건축의 현대화를 목표로 설계 공모에 참여했으며, 특히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도서관' 중 하나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도서관'의 설계자로 유명하다. 이은영 건축가는 전북 대표도서관의 설계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건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 시설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투시도.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광객들에게도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도서관의 시설과 서비스는 전북 지역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건립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과 완공 후 문화 관광객 유치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표도서관 건립은 전북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서관이 완공되면 전통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도 매력적인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우수 지자체'

전북자치도, 우수상 수상...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 법령 개선·예산 확보·전문인력 양성 등 높은 평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25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 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코시어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포용으로 피어나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11월 3일까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상 배경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 예산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이번 수상을 이끌어냈다.

특히 전북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멋스러운 도시공간 구현을 목표로, 올해 총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역사와 예술성이 담긴 공공디자인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전북은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과 예술성이 가미된 도시공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중이다.

/이만호 기자

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에 앞장

전북 디지털 특화형 통합상담소·피해자 맞춤형 지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전북경찰청과 여러 폭력피해자 지원기관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해바라기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디지털 성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범죄 피해 시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5대 폭력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총 216개소에서 7,76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만호 기자

도, 출향 단체·도민 초청해 고향의 정 나눠

제44회 도민의 날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제44회 도민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39개 출향 단체 소속 출향 도민 130여 명을 초청해 고향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출향 도민들의 애郷심을 고취하고, 도정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출

향 도민들은 대둔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고향의 정취를 느꼈다. 이후 전장에서 처음 개최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방문해 기업 전시관과 농특산물 홍보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에서 "출향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이 있었기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이동장터 운영 선진사례 답사

도의회 '식품사막 해소 정책연구회', 고흥·영광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대표 서난이 의원)가 이동장터 운영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전라남도 고흥군과 영광군을 방문했다.

1일차에 연구회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농협을 방문해 이동장터 운영에 대한 청취 및 답사를 진행했다. 거금도농협은 수송차량을 개조하여 '찾아가는 마트, 행복한 화목장터'인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장터는 거금도 내 마을을 순회하며 신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동장터를 운영 중인 추부행 거금도농협장은 "이동차량 내 계산대POS 단말기)와 냉장냉동 시설을 설치하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족도가 높은 이동장터는 농협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 비용(인건비, 관리비)의 부담이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일 차에 연구회는 전남 영광군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동락점



빵)를 방문했다. 동락점빵은 2011년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설립되었고, 마을가게와 함께 이동장터를 운영 중이다.

동락점빵을 운영하는 권혁범 대표는 "동락점빵은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아닌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실천하는 사업체"라며 "동락점빵의 이동장터를 통해 식품 사막화를 막고 장기적으로 농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